

제 55 강

바울의 체포와 로마행

(사도행전 연구 IV)

■ 성경본문 사도행전 21:15-28:31 ■

프렐류드(Prelude)

오늘 우리는 체포, 감금, 로마행으로 이어진 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드린 바울의 순례적인 여정을 주제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로마 체류 동안에도 끝없이 대결해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족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긴긴 수난과 박해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 함께 동행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차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초인간적, 초논리적 통로를 통해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을 이어 가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온 무리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라는 종을 들어서 드러내시고 계셨습니다.

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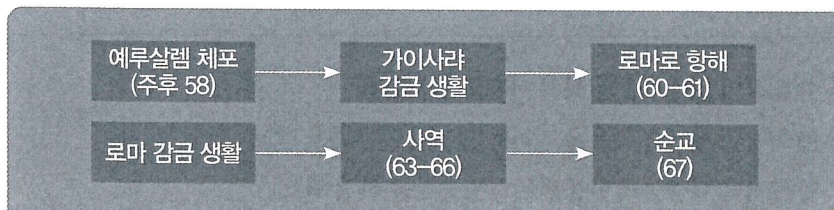
1. 바울의 체포와 감금(사도행전 21:15-26:32)
2. 바울의 로마 호송(사도행전 27:1-28:31)

II. 시대적 배경

바울의 제 3 차 전도여행을 주후(AD) 53-58년경으로 본다면, 그때는 아직 로마 시 대화재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네로가 가한 그리스도교 대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지만, 바울의 체포, 심문, 이송, 로마 체류 과정에는 로마제국의 박해보다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투, 비난, 성토, 살인음모가 바울을 더 크게 괴롭혔습니다.

예수 운동 때문에 유대교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연대표〉



바울의 로마행

III. 말씀과 해석

1. 바울의 체포와 감금(사도행전 21:15-26:32)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환영하고 대다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정면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율법의 거룩함을 몸소 증거 해 보이고, 서원의 규례도 다 잘 이행하였습니다(행 21:17-26).

(1) 바울의 체포(행 21:15-22:29)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구실로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인들의 구출, 천부장의 명령으로 체포 되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대중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행 21:27-40).

대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증은

- 1) 회심이전의 생활과 회심 이후의 자기고백
- 2)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 3) 그러나 대중들의 난동으로 감방생활을 하게 되고,
- 4) 바울은 자유를 잃고 감금생활을 시작(행 22:1-29)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 공회 앞에 선 바울(행 22:30-23:11)

- 1)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증
- 2) 선교의 목적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언
- 3)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 4)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격론이후 바리새파가 바울의 편에 서게 되고

5) 장내의 큰 소란이 일자-천부장이 다시 병영으로 끌고 들어 갔으며

6) 그날 밤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행 23:11)였습니다.

(3) 가이사랴에 감금된 바울(행 23:12-26:32)

1) 천부장의 감옥 투옥

2) 40명 결사대의 살인 음모

3) 공회 앞에서 살해할 목적

4)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

5) 로마 시민권 소유자임을 알림

6) 벨릭스-바울을 헤롯관전에 감금

7)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행 24:1-9)

8) 이 고소에 대해 바울의 신상발언-율법으로 무결-다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기 때문에 고소당함

9) 벨릭스의 감금-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 것을 지시(행 24:10-23)

10) 며칠 후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 청취-최후심판에 대한 해설

11) 벨릭스는 2년 감금-후임인 베스도(Pestus)에게 인계(행 24:24-27)

12) 2년이 지난 뒤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변론

13) 바울은 불공정한 유대인의 송사에 대하여 가이사(로마 황제)에게 상소-이 상소로 바울은 또 3년을 철창에 갇힌 감옥 생활을 함(행 25:1-12)

14) 헤롯 아그립바 왕과 다른 고관대작들 앞에서 다시 진술(행 25:13-27)-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행 26:1-23)

15) 바울은 이미 가이사에게 호소-로마 시민의 권리 존중-로마로 보내기로 가결.(행 26:24-32)

수 년에 걸친 엄청난 살인음모와 위협 앞에서 바울은 홀로 서서 자신을 변증

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2. 바울의 로마 호송(사도행전 27:1-28:31)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오를 때 바울은 “나는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 19:21)고 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복음을 전파한 후 최대의 이방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었습니다.

(1) 가이사라의 출항과 항해(행 27:1-28:10)

1) 로마행-풍랑-‘좋은 항구’도착-월동 제안-거절 당함

2) 더 세찬 폭풍우 만남-표류-절망 앞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행 27:22-25)라고 말하고 배의 주도권을 잡았음.(행 27:1-26)

3)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선원들 만류-배 파선-육지에 모두 무사히 상륙(행 27:27-44)-276명 모두 몰타섬에 상륙-원주민들이 조난객 구조와 친절

4)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의 손-독사가 물었으나 아무 상처가 없이 무사-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신이다”라고 함(행 28:6)

5) 복음전파-치유-큰 성공(행 28:1-10)

(2) 로마에서의 바울(행 28:11-31)

1) 멜리테에서 3개월-그리고 봄

2) 디오스구로호 출항-시실리섬을 거쳐 이태리 본토 보디올에 상륙-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의 영접-평생 소원인 로마 입성(행 28:11-15)

3) 로마-복음을 전할 기회-그러나 전도자가 아닌 죄수-로마 수비대장에게 인계됨.

4) 그러나 바울은 투옥되지 않음-셋집에서 거주 허용

5) 3일후 유대인지도자들 초청-로마에 온 경위를 설명-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겨레에 대해서나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에 대해서 거슬리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했지만 사형에 처할만한 죄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놓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포를 고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뵈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행 28:17-20 공동번역)

6)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하나님 나라 증언- 믿는 사람과 불신으로 갈림

7) 이사야를 통한 말씀 증언-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함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

(5) 예수도(눅 23:15), 바울도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였지만 끝내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소란과 압력이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수난사와 바울의 수난사가 유사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의 수난사를 모델로 하여 바울의 수난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하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세계선교의 처음 주자였습니다.

3.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실한 선교사, 설교가, 교육가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공동번역 / 행 28:26-27, 사 6:9-10)

8) 그 후 2년간 재판을 기다림-모두를 환영-하나님 나라 선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행 28:30-31)

사도행전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바울의 최후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주후 62년 이전 바울은 무죄로 석방되어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악명 높은 카르세르 마메르티눔(carcer Mamertinum)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를 구실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사도행전 21-28장은 바울 수난사의 절정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체포와 로마행은 예수님의 수난사와 같은 ‘프레임’(frame)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성전적, 반율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소하고 또 투옥되었다는 사실, 심문 과정에서 로마법으로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예수의 수난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1) 예수는 세 번 수난을 예고했으며(눅 9:22, 44-45, 18:31-34), 바울 역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세 번 나옵니다(행 20:23, 21:2-6, 21:7-16).

(2)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환영과 박해가 병행하는 것도 같습니다. 누가는 특히 예루살렘의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며 기뻐했다고 보도하는데(눅 19:39),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의 경우도 같은 뜻의 환영을 받았습니다(행 21:17).

(3)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주제는 부활이었으며(눅 20:17-40), 바울의 경우도 같습니다(행 23:6-8, 24:21, 25:19-33).

(4) 심문과정에서 바울은 군중 → 산헤드린 공회 → 벨릭스 총독 →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한 번의 유사한 신문 → 헤롯 아그립바 앞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의 심문 과정도 대제사장 집 → 산헤드린 공회 → 빌라도 법정 → 헤롯 앞으로 되어있습니다.